

##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정성국 수석연구원(skjung@bnkfg.com)  
권민지 책임연구원(minji.kwon@bnkfg.com)

원자재 가격이 2016년부터 반등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의 방향성은 상승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며 금속원자재의 경우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수급개선에 힘입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자원수출국의 경기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부진하였던 브라질, 러시아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고 호주, 칠레, 캐나다 등의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권은 주력산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만큼 자동차·화학·기계 등 관련 제조업종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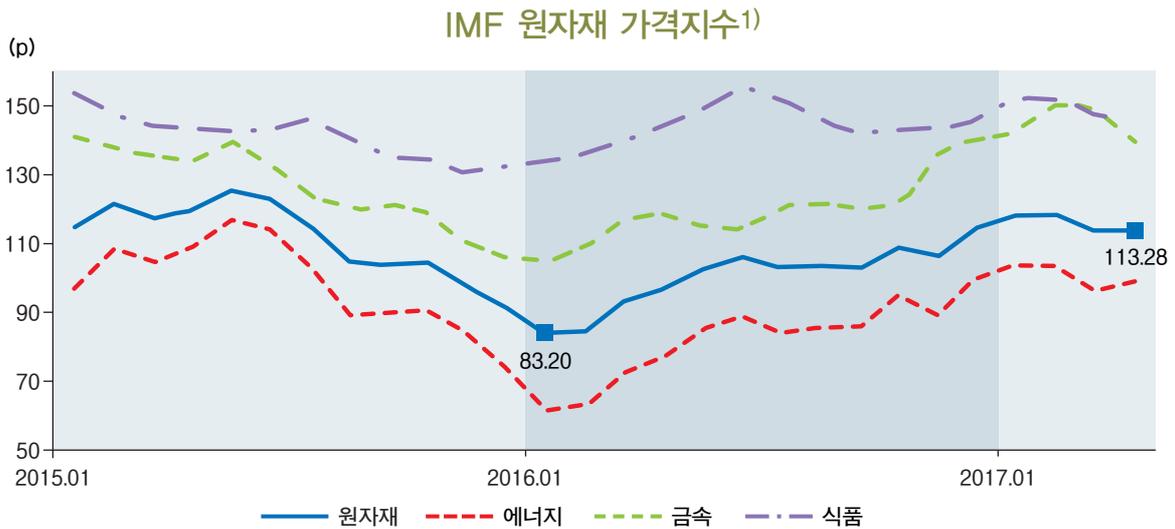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이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기업 차원에서의 원가절감 노력 외에도 이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원자재 가격, 2016년 이후 상승세

2016년 들어 원자재 가격은 2011년 이후의 하락흐름에서 벗어나 반등하고 있다. 2016년 중에는 25.8% (IMF 원자재가격지수 기준)의 급등세를 기록하였으며 금년초 (1~4월중)에는 횡보하는 모습이다.

원자재 중 에너지 부문<sup>1)</sup>은 2016.1월~2017.4월중 35.7%의 높은 가격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금속(32.4%), 식품(9.9%), 농림업 원자재(8.0%), 음료(-13.8%) 등 비에너지 부문의 상승폭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최근의 기대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원자재 가격이 글로벌 경제 상황과 높은 동조성을 보이고 있는데 기인한다.



1) IMF는 국제원자재를 에너지 자원, 금속 자원, 식품 자원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

국제원자재 (All commodities)	비에너지 (Non-fuel)	에너지(Energy)	
		식품 및 음료 (Food & beverage)	식품(Food) 음료(Beverage)
	산업용 원자재 (Industrial inputs)	농림업 원자재(Agricultural raw material) 금속(Metals)	

## 국제유가는 상승흐름이 이어질 전망

국제유가(WTI 기준)는 2016년초 배럴당 20달러대까지 하락하였으나 OPEC의 생산 감축 합의 등으로 2016년말 50달러대로 급등<sup>2)</sup>하였다. 다만 금년 1~4월중에는 미국의 원유생산 증가가 OPEC의 감산효과를 제약하면서 유가는 45~55달러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유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승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OPEC의 감산정책 지속, 미국 및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OPEC은 금번 정례 회의(5.25)에서 감산기한을 금년 6월에서 2018.3월로 9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에서도 국제 원유가격이 2016년 평균 43.5달러에서 2017년 58.5달러, 2018년 62.2달러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미국의 원유생산 확대여부<sup>3)</sup>가 가격상승 폭을 결정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증산으로 감산효과가 불투명해질 경우 OPEC이 기존의 감산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료 : Bloomberg

### 주요 IB 유가 전망<sup>1)</sup>

구분	2017	2018
Barclays	55.33	64.00
Citi Group	57.67	58.00
Societe Generale	58.00	60.50
BNP Paribas	59.00	60.00
Standard Chartered	62.67	68.67

주 : 1) 2017.4월 기준

자료 : Bloomberg

2) 26.21달러(2016.2월) → 54.06달러(2016.12월)

3) 미국내 원유시추기 수가 2016.5월 이후 증가(2016.5월 316개 → 2017.4월 697개)

## 금속원자재 가격, 금년 들어 상승세 주춤

금속원자재<sup>4)</sup> 가격은 2016년 이후 수급이 상당부분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금년 1~4월중에는 알루미늄, 아연, 구리 가격이 지난해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철광석, 니켈 등은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품목별로 보면 철광석 가격은 중국의 수요증가 등으로 2016년 79.9%의 급등세를 보였으나 금년 들어 중국내 재고과다 등으로 하락하였다. 니켈의 경우도 지난해 필리핀 광산 폐쇄 등으로 13.6% 상승하였으나 금년 들어 인도네시아 광물 수출금지 완화조치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연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흐름을 보이며 2016.1월~2017.4월중 63%의 오름세를 기록하였다. 이는 주요 비철금속 중 가장 큰 상승폭이다. 아연강판에 대한 수요증가와 칠레 등 대형광산 폐쇄에 따른 재고감소가 맞물린 데 주로 기인한다.

알루미늄과 구리도 같은 기간 20%대의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알루미늄은 수요증가 및 중국의 알루미늄 제련소 감산 법안<sup>5)</sup> 통과 등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구리의 경우는 대형광산의 노조파업과 주요 생산지인 페루의 홍수 발생에 따른 공급 감소 등으로 가격 오름세를 보였다.



4) 철광석은 철강제품을 통해 자동차·선박·건축·토목·전자산업 등에서 주로 활용되고 구리는 전선·동판·전기전자부품 재료로, 알루미늄은 항공기·건축자재·전자통신기기·가전제품 등으로, 니켈은 건축자재·전기제품 등으로 주로 사용됨 (한국은행, 2016)

5) 중국정부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겨울철 4개월간 알루미늄 제련소 생산량을 30% 감축하는 법안을 발표(2017.3월)

## 향후 반등 가능성에 무게

금속원자재 가격은 품목별로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수급개선에 힘입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World Bank(2017.4월)에서도 2017년 금속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연은 공급부족 및 중국의 수요증가 등으로 2016년 톤당 2,090달러에서 2017년 2,750달러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구리는 인도네시아의 수출 규제로 생산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5,750달러까지 상승하고 알루미늄은 중국의 감산영향으로 1,800달러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년초 가격이 다소 하락했던 니켈은 2016년에 비해 생산량이 30%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10,500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광석 가격은 2016년 58.4달러에서 2017년 65.0달러로 반등할 전망이다. 하지만 과잉재고 지속, 중국의 수요감소 등으로 2018년 이후에는 다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이 건설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 원자재 수요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세계철강협회도 중국의 철강수요가 2018년부터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sup>6)</sup>하고 있다.

### 주요 원자재 가격 전망<sup>1)</sup>

(달러/톤)

구분	2016	2017 <sup>e</sup>	2018 <sup>e</sup>
철광석	58.4	65.0(11.3)	55.0(-15.4)
알루미늄	1,604	1,800(12.2)	1,828(1.6)
아연	2,090	2,750(31.6)	2,600(-5.5)
구리	4,868	5,750(18.1)	5,838(1.5)
니켈	9,595	10,500(9.4)	11,034(5.1)

주 : 1) ( )내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Outlook (2017.4)

6)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는 중국의 철강수요가 2017년 681.0백만톤에서 2018년 667.4백만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2017.4월)

##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자원수출국의 경기개선 기대

최근 IMF는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5%로 0.1%p 상향 조정하였다. 지난 수년간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긍정적인 변화이다. 보호무역주의 확대, 미국 금리인상 등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향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 개선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자원수출국의 경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 및 러시아의 경우 2015년, 2016년 연속으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부진하였으나 2017년에는 플러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호주,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의 경제성장률도 국제원자재 가격 회복에 따라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자원수출국<sup>1)</sup> 경제성장률 전망

(% , %p)

구분		2016년 (A)	2017년 (B)	2018년	전년대비 (B-A)
광물자원 수출국	호주	2.5	3.1	3.0	0.6
	칠레	1.6	1.7	2.3	0.1
	브라질	-3.6	0.2	1.7	3.8
	남아프리카공화국	0.3	0.8	1.6	0.5
	페루	3.9	3.5	3.7	-0.4
에너지자원 수출국	러시아	-0.2	1.4	1.4	1.6
	사우디아라비아	1.4	0.4	1.3	-1.0
	캐나다	1.4	1.9	2.0	0.5
	노르웨이	1.0	1.2	1.9	0.2
	아랍에미리트연합	2.7	1.5	4.4	-1.2
(평균)		1.1	1.6	2.3	0.5

주 : 1) WTO의 「World Trade Report 2010(Trade in natural resources)」에서 광물(mining products) 및 에너지(fuels)자원 수출규모 상위 15위로 분류된 국가중 자원비중이 총수출의 10% 및 20% 이상인 국가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2017.4)

한편 동남권에서 수출액(2016년 기준)이 5억달러 이상인 자원수출국은 인도네시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연합, 러시아, 캐나다, 브라질, 이란, 칠레 등으로 나타났다.<sup>7)</sup>

최근 5년간(2012~16년)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규모는 1,276억달러로 동남권 전체 수출의 17.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13.3%)과 미국(12.6%)으로의 수출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원수출국의 경기 개선이 동남권 수출 확대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 주고 있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228억달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호주(218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203억달러), 노르웨이(117억달러), 아랍에미리트연합(112억달러)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원수출국<sup>1)2)</sup>에 대한 동남권 수출현황

(백만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소계
인도네시아	7,126	5,136	5,113	3,109	2,271	22,756
호주	4,340	3,949	5,171	5,515	2,782	21,757
사우디아라비아	4,635	4,440	3,916	4,669	2,624	20,284
노르웨이	743	1,424	1,549	4,671	3,319	11,706
아랍에미리트연합	2,344	1,717	2,486	2,170	2,457	11,174
러시아	2,680	2,658	3,079	1,243	1,480	11,140
캐나다	1,944	1,797	1,869	1,890	2,533	10,032
브라질	2,949	2,070	1,806	1,266	1,055	9,145
이란	2,186	1,038	889	843	945	5,900
칠레	1,028	943	697	495	535	3,698
(자원수출국에 대한 동남권 수출비중)	(18.0%)	(16.1%)	(16.8%)	(19.1%)	(16.1%)	(17.2%)

주 : 1) 자원수출 규모가 연 100억달러 이상이고 자원수출 비중이 총수출의 20% 이상인 국가 중 동남권에서의 수출액이 5억달러 이상인 국가

2) 자원은 원유(2709), 석탄(2701), 천연가스(2711), 철광석(2601), 동(74), 알루미늄(76), 아연(79), 연(78), 니켈(75) 기준 [( )내는 HS코드]

자료 : 한국무역협회, UN Comtrade, USIP

7) 세계 10대 자원수출국과 비교해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루가 제외되고 인도네시아와 이란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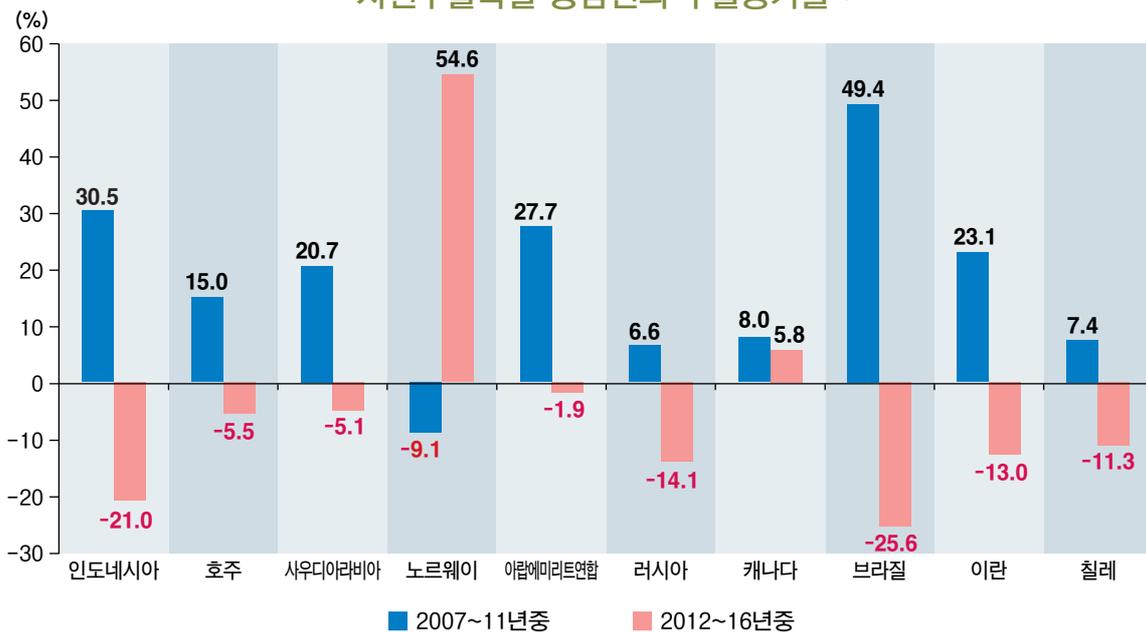
## 자원수출국에 대한 동남권 수출도 회복 가능성 자동차·화학·기계를 중심으로 증가 예상

2007~16년중 자원수출국에 대한 동남권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5.2%로 동남권 총수출(2.8%) 대비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2007~11년에는 20.0%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원자재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2012~16년에는 수출증가율이 -7.9%로 크게 하락하였다.

국가별로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동기간 브라질은 49.4%에서 -25.6%, 인도네시아는 30.5%에서 -21.0%, 러시아의 경우 6.6%에서 -14.1% 등으로 감소하여 동남권 수출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침체가 수년간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최근의 원자재 가격상승이 본격적인 자원수출국의 경기회복 신호가 될 것인지 여부가 동남권 수출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원수출국별 동남권의 수출증가율<sup>1)</sup>



주 : 1) 기간중 연평균 수출증가율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자원수출국에 대한 동남권의 수출품목은 자동차·자동차부품(26%), 석유·화학제품(19%), 기계·기계부품(15%), 선박·해양플랜트(13%), 철강제품(7%)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고 이들 상위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5대 수출품목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 자동차·자동차부품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23%), 캐나다(19%), 석유·화학제품은 인도네시아(57%), 호주(36%) 그리고 기계·기계부품은 사우디아라비아(24%), 아랍에미리트연합(17%) 등에 대한 수출이 많았다. 한편 선박·해양플랜트는 노르웨이(68%)의 비중이 높았고 철강제품은 호주(34%)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동남권의 주력산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자원수출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동차·화학·기계 등 관련 제조업종이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원수출국에 대한 동남권 주요 수출품목 1)2)3)

(백만달러)

구분	수출액	수출 비중	최대 수출국가		
			1순위	2순위	3순위
자동차·자동차부품	33,547	26%	사우디(23%)	캐나다(19%)	호주(17%)
석유·화학제품	23,896	19%	인도네시아(57%)	호주(36%)	사우디(2%)
기계·기계부품	18,877	15%	사우디(24%)	UAE(17%)	러시아(13%)
선박·해양플랜트	16,694	13%	노르웨이(68%)	호주(9%)	브라질(6%)
철강제품	8,716	7%	호주(34%)	UAE(18%)	사우디(16%)
전기기기	6,578	5%	사우디(53%)	UAE(12%)	러시아(10%)
플라스틱제품	3,688	3%	인도네시아(24%)	이란(23%)	러시아(19%)
철강	2,236	2%	이란(22%)	인도네시아(20%)	브라질(11%)
기타	13,357	10%	-	-	-
소계	127,592	100%			

주 : 1) HS 2단위 기준  
 2) 2012~2016년중  
 3) ( )내는 수출품목에 대한 각 국가별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중소제조업체의 채산성 악화에 유의할 필요

원자재 가격상승은 제품단가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져 수출기업의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상승에 의한 생산비 상승을 판매가격에 즉시 전가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상승이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sup>8)</sup>

중소기업중앙회의 「2016년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제조업)」에서 수급기업<sup>9)</sup>이 모기업과 납품거래시 겪은 애로사항으로 ‘원자재 가격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이 50.3%, ‘납품단가 인하’가 49.7%로 대부분을 차지해 납품단가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 차원에서 원가절감 및 비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동남권 수출 회복의 온기가 주요 수출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 수급기업의 모기업 거래시 애로사항<sup>1)</sup>

(%)

원자재 가격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	납품단가 인하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	납기단축 촉박	불규칙 발주	납품대금 결제기일 장기화	일방적인 거래선 변경통보	기타
50.3	49.7	38.7	21.4	20.6	18.6	3.7	3.6

주 : 1) 복수응답 결과로 합계가 100.0 초과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8)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2015년 제조원가명세서) 자료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총제조비용 중 재료비가 평균 65.5%의 비중을 차지하여 타업종 대비 재료비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주요 제조업종별 재료비 비중 : 자동차(74.1%), 화학(71.3%), 기계(59.8%), 금속(57.7%), 조선(53.9%)

9) 다른 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

[ 참고문헌 ]

국제금융센터,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2017.5.2

기획재정부, “세계은행,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 2017.5.12

중소기업중앙회, “2016년 중소기업실태조사 보고서(제조업),” 2016.12.30

한국무역협회, “2015년 국제원자재 가격 전망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 2014.12.30

한국은행, “최근의 주요 금속원자재시장 수급여건 점검,” 2016.5.26

\_\_\_\_\_, “2017년 국제 원자재시장 전망 및 시사점,” 2017.1.19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7.4.18

World Bank, “Commodity Markets Outlook,” 2017.4.26

World Steel Association, “World Steel Short Range Outlook 2017-2018,” 2017.4.21

WTO, “World Trade Report 2010 (Trade in natural resources),” 2010.7.23

BNK경제인사이트 발간목록

2014

0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동남권 수출의 변화와 시사점
06	부산지역 아파트 시장 동향과 전망
07	글로벌 해운시장 전망과 동남권 조선업의 과제
08	동남권지역의 고용구조 변화와 시사점
09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엔화환율 동향과 전망
10	동남권 지방은행의 그룹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1	2015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월드클래스 300기업의 특징과 지역기업에 대한 시사점

2015

01	G2경제 항방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2	최근 국제금융시장 진단과 시사점
03	동남권의 중남미 교류 현황과 과제
04	지역경제 혁신의 동력 - 사물인터넷
05	동남권 자동차산업 현황과 과제
06	동남권지역 서비스업 현황
07	최근 기업금융 현황
08	중국경제 전망과 동남권 경제에 대한 시사점
09	동남권지역 주택시장 현황
10	동남권 창업생태계와 발전과제
11	2016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경쟁력 우위 조선해양기자재업체의 특징

2016

01	중국경제에 대한 최근의 시각
02	회사채 시장 동향 분석
03	10대 신흥국(중국제외)에 대한 동남권지역 수출 분석
04	동남권지역 건설업 분석
05	한국형 양적완화와 구조조정
06	주요국 통화 환율 동향과 전망
07	브렉시트와 지역경제
08	동남권 상장기업 경영실적 분석
09	동남권지역 대출 및 예금시장 동향
10	동남권지역 소매판매 동향 및 특징
11	2017년 동남권 경제전망
12	동남권 수출 변화 및 시사점 : 최근 5년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7

01	동남권 아파트 가격 동향 및 전망
02	4차 산업혁명과 동남권 일자리
03	동남권 기업의 인도차이나반도 진출현황 및 시사점
04	글로벌 환율동향과 동남권 경제
05	원자재시장 동향 및 시사점



**50년의 믿음,  
100년의 약속!**

**50**  
SINCE 1967  
BNK 부산은행 창립50주년  
50년간 믿음, 100년의 약속

고객 한 분 한 분의 믿음을 자산으로  
더 크게 성장해온 BNK부산은행.  
지역을 대표하는 50년 은행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년 은행으로!  
앞으로의 BNK부산은행을 기대해주세요

**BNK 금융그룹**

**BNK BNK금융지주**

제2017-05호  
 신고번호 부산남, 라00006  
 신고일자 2016년 10월 14일  
 발행인 성세환  
 편집인 정민주  
 발행처 BNK금융지주 (www.bnkfg.com)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문현동)  
 연락처 Tel : 051-620-3180 Fax : 051-620-3199  
 인쇄 애드벤처  
 2017년 5월 31일 발행

BNK금융지주 홈페이지에서 BNK경제인사이트 뿐만 아니라  
경제 및 금융분야의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